

전문통역사의 어휘능력* — 통역능력습득에 대한 경험연구 —

정혜연 · 고효정**

(충남대)

1. 들어가며

통역을 배우는 학생들은 누구나 전문 통역사가 되기를 꿈꾼다. 통역을 습득하는 속도와 양상은 각기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모습은 다들 머리 속에 가지고 있다. 통역 혹은 번역 전문가를 전문가이도록 하는 이 능력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주제가 통역을 배우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큰 관심이다 보니 이에 대한 연구가 초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진행되어 왔다.¹⁾ 통역의 능력

* 가설과 분석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효정(2013)을 참조하길 바란다.

** 공동 저자

1) 1998년 스페인의 PACTE 프로젝트를 선두로, 덴마크의 CRITT, 노르웨이의 EXPERTISE, 브라질의 EYE-TO-EYE, LETRA, 스페인의 PETRA, 오스트리아의

(competence)이라는 것은 통역을 하는 통역사들의 그 때 그 때 수행(performance)에서 공통점을 모은 인지심리적 체계로, 여러 가지 하위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혜연(2011)에서는 PACTE(2008) 등에서 볼 수 있는 하위능력 범주 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경학적 기준에 따라 통역능력을 시청각능력, 발성능력, 다중언어능력, 언어전환능력, 기억(지식), 기억력(학습능력), 주의능력의 일곱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이 하위능력들은 통역을 익히고, 연습, 실습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달하면서 궁극적으로 전문가의 통역능력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습득과정은 얼핏 보기에 학생들마다 각기 달라 보이지만, 실제 일정한 순서를 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선 통역능력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인지발달은 아동기뿐 아니라 청소년기, 중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친다(Ginsburg & Oppen 2006; Perry 1970; King & Kitchener 1994). 특히 통역과 지대한 관계가 있는 언어습득의 경우, 제1언어 습득뿐 아니라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서순성 있는 발달을 보인다(Bailey et. al. 1974; Dulay et. al. 1982). 이렇게 볼 때 인지발달, 특히 언어능력에 바탕을 둔 통역능력도 일정한 단계에 따라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통역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여러 하위능력으로 이루어진 통역능력 체계를 갖는다. 이 하위 능력은 통역습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달하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통역능력 중에서도 ‘어휘’능력을 관찰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통역능력은 통역의 결과물인 언어로 나타나는데, 어휘는 다른 언어단위에 비해 관찰과 분석이 비교적 용이하여, 분석에 있어 주관성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역 전문가의 어휘능력이 비전문가와 어떻게 다른지 밝히는 것이다. 이론 부분에서는 우선 기존 인지언어학, 통번역학 연구를 통하여 통역 전문가의 어휘능력의 특징을 고찰한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통역 전문가의 어휘능력과 어휘능력 습득의 서순성에 대한 가설을 수립한다.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16인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위 가설이 타당한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본다.

TransComp 프로젝트 팀이 현재 통번역 능력 연구를 진행 중이다. (Shreve & Angelone 2010:2)

2. 통역사의 어휘능력

어휘능력은 정혜연(2011)에 언급된 일곱 가지 통역 하위능력 중에서도 다중 언어능력과 기억(지식), 그리고 언어전환능력이 조합된 복합체이다. 통역사의 어휘능력에 다중언어능력과 언어전환 능력이 포함되는 것은 통역의 성격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휘능력에 기억이 포함되는 것은 어휘가 본질상 형태(글씨, 소리) 이외에도 내용(의미) 측면을 갖기 때문이다. 즉, 어휘를 습득하면서 어휘의 의미에 해당하는 지식도 함께 확장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세 분야로 이루어진 통역사의 어휘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 통역사의 어휘능력은 고유의 특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중언어자, 나아가 단일언어자와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말하자면 이중언어자의 일부인 통역사의 어휘능력은 이중언어자의 어휘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중언어자의 어휘능력은 다시금 단일언어자의 어휘체계에서 특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통역사의 어휘능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단일언어자의 어휘체계를 살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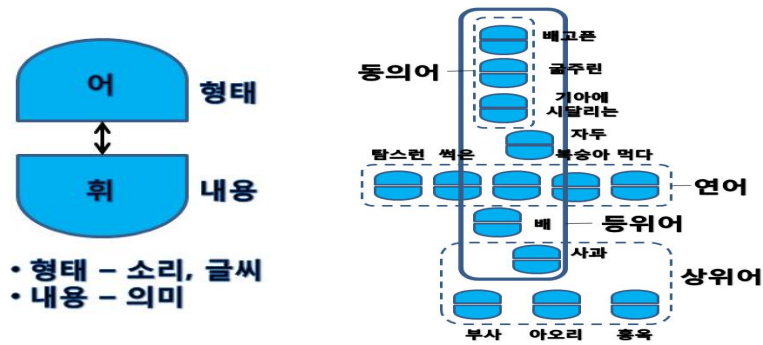
단일언어자를 포함한 모든 언어사용자에게 있어 개개의 어휘는 형태(글씨, 소리)와 내용(의미)으로 이루어져있고(그림 1 왼쪽), 하나의 어휘는 다른 여러 개의 어휘와 연계되어 어휘의 네트워크를 이룬다. 에이치슨(Aitchison 2004)은 어휘 간의 연결종류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Aitchison 2004: 162-163).

- 등위어(coordination) 연결 - 세밀함의 수준이 같은 어휘끼리의 연결. 예) 소금-후추, 빨간-흰, 사과-배
- 연어(collocation) 연결 - 관용어만큼은 아니나 함께 쓰이는 빈도수, 즉 공기성(co-occurrence)이 높은 어휘끼리의 통합적(syntagmatic) 연결. 예) 양말-신다
- 상위어(superordination) 연결 - 한 어휘가 다른 어휘의 하위 범주에 속할 때 두 어휘간의 연결 예) 곤충-나비, 과일-사과
- 동의어(synonymy) 연결 - 의미상 대체될 수 있는 어휘끼리의 연결. 예) 배고픈-굶주린

에이치슨은 위의 네 가지 중에서도 등위어의 연결이 강하다고 하였는데(그림 1 오른쪽), 실제 그는 실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쌍의 어휘를 보여주며

두 어휘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흰 공을 누르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했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실어증에도 불구하고 등위어 관계에 있는 어휘쌍에 특별히 빠르게 반응한 것이다. 그리고 연령대를 달리한 어휘 실험에서도 고연령대 피험군이 등위어 연결에 한해, 젊은 피험자군과 비슷하게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Aitchison 2004: 166-167).

〈그림 1〉 단일언어자의 어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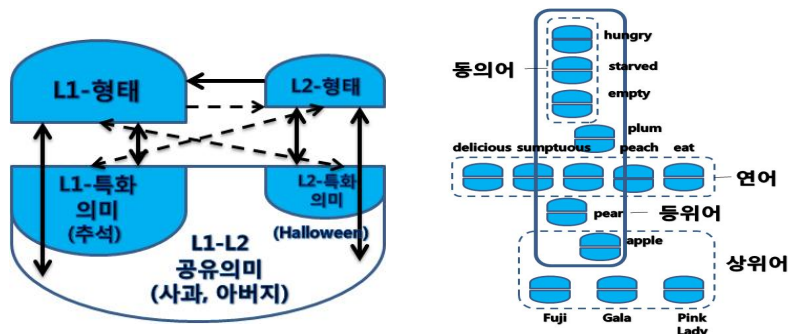
이중언어자의 경우도 L1(모국어), L2(첫번째로 습득한 외국어) 각각의 어휘 체계를 놓고 볼 때 그 구조가 단일언어자의 어휘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형태와 의미로 이루어진 어휘가 다른 어휘와 만나 네트워크를 이룬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중언어자가 단일언어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 L1에 L2 어휘체계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이 때 새로이 추가되는 부분은 특히 L2의 형태이다. L2의 의미영역은 L1의 의미영역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예를 들어 ‘별’, ‘star’로 어휘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그 글씨(소리)가 표상하는 개념 ‘☆’은 L1, L2가 같다. 물론 추석, Halloween과 같이 사회문화적 어원을 가지고 L1, L2 각각에만 특화된 의미영역도 있다. 둘째, 이중언어자 어휘구조에는 L2의 추가로 L1 어휘 내의 연결망이 L2로 확대된다. L1-L2 어휘 간 연결이 생겨나는 것이다.

- L1-L2 연결 - 모국어와 외국어 간의 연결 예) society - 사회

L1-L2 어휘의 연결강도 여부는 L2의 습득시기(결정적 시기 이전 혹은 이후), 습득방식(자연적 습득 혹은 학습), 사용빈도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예

로써 사춘기 이후 학교에서 인위적 학습을 통해 L2를 배운 이중언어자의 경우, L2(예: society)를 L1(예: 사회)을 통해 공부했기 때문에 L2 인출에 있어 L1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L2 초보자에게서 언어간섭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L2의 L1 의존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중언어자의 어휘체계는 파블렌코(Pavlenko 2009: 147)에 도식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셋째, L2 체계는 이중언어자가 L2를 습득하고 사용할수록 확대되는데, 초기에는 어떠한 환경에서 L2를 습득하느냐에 따라 확대되는 어휘가 다소 무작위적이다가, L2 어휘양이 L1 어휘양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L2의 내부 구조도 L1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L2 어휘들 간의 연결 형태가 L1 어휘 간의 연결 형태와 유사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등위어 연결 강화 등)(그림 2 오른쪽). 이는 L2 습득자가 L2 모국어 화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L2를 실생활에 사용하면서 L2의 사회문화적 체험을 하게 되어 L2의 의미영역이 모국어 화자와 유사해지고, 이에 따라 L1, L2의 중복 의미영역도 재구조화되기 때문이다²⁾.

〈그림 2〉 이중언어자의 어휘체계



고급 이중언어자일수록
- L1-L2의 크기가 유사해진다.

고급 이중언어자일수록
- L2 등위어 연결이 강하다.
- L2 모국어 화자와 유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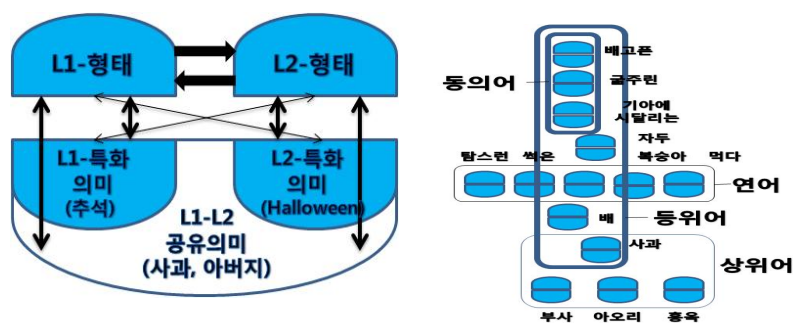
2) L1-의미 간의 연결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지 모르나, 같은 의미영역이 L2와 연결될 때는 다른 활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는 한국어 어휘와 연계된 의미 영역은 ‘family’라는 영어 어휘와 연계될 때 다른 함의를 도출한다.

통역사는 고급 이중언어자라는 점에서 그의 어휘체계도 이중언어자의 어휘 체계와 기본 구조가 유사하다. L1, L2 각각의 어휘체계가 있고, 두 어휘체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공동 의미영역을 갖는다는 점은 같다. 통역사에게 있어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L1-L2간의 관계이다. 첫째, L2 어휘양이 증가함에 따라, L1과 L2의 크기가 평균적 이중언어자에 비해 서로 비슷해져 균형을 이룬다. 이러한 균형은 통역사가 L1-L2의 등가어³⁾를 짝을 이루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강해질 수 있다(그림 3 왼쪽). 쿠르츠(Kurz 1996)는 간단한 어휘연상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한 바 있다. 쿠르츠는 독어, 영어 이중언어자 한 그룹과 통역 학생 1, 2, 3학년 그룹을 대상으로 독어, 영어 각각에 대한 연상어휘를 나열하도록 하고, 연상어의 수를 바탕으로 어휘균형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통역을 오래 배울수록 두 언어의 어휘 간에 균형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역사에게 있어 L1 \rightleftharpoons 의미 \rightleftharpoons L2의 연계는 모든 방향으로 강하다. 통역사는 평균적 이중언어자와는 달리, L1, L2를 자연스러운 담화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L1, L2 모두 의미에서 언어형태를 도출하는 데에 익숙하다. 즉, L1-의미, L2-의미의 연계가 강하다는 의미이다. 또 통역상황에서 L1-L2를 쌍방향으로 연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L1 \rightleftharpoons L2의 연계 역시 강하다. L1 \rightleftharpoons L2의 연계가 강해짐으로써 쌍방향의 언어전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단, 여기서 L1-L2의 연계가 강하다는 것은 L2 초보자에게서 볼 수 있는 L1 의존성과는 다른 의미이다. 통역사의 L1-L2 연계는 강하나, 동시에 유동적이어서, 통역사는 원하면 L1에 의존하지 않고 L2 어휘를 인출할 수 있다. 통역사는 자신이 처한 담화상황(L1 담화상황, L1 \rightarrow L2, 통역상황 등)에 따라 자신이 어휘를 인출하는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셋째, 통역사의 어휘연결은 보다 특화된다. 본고에서는 앞서 에이치슨(2004)을 통해 단일언어자의 등위어 연결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통역사는 L1 모국어 화자이자 L2의 고급 구사자로, L1뿐 아니라 L2에서도 등위어가 강한 연결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도 통역사에게는 동의어 연결이 강할 수 있다. 거버 외(Gerver et. al. 1989)는 통번역학교

3) 등가어(equivalent)의 개념은 언어적, 텍스트 문맥상 특성, 이 어휘를 접하는 번역자,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합적이고 유동적 개념이다(김효중 2000). 하지만 여기서는 실험 편의를 위해 복합성을 배제하고 ‘사전에 등록된 대응어’라는 간단한 의미로 사용한다.

입학시험에서 12종류의 어휘연상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같은 학생의 졸업시험 합격 여부와 비교했다. 그 결과, 12종류 시험 중, 동의어 시험 결과와 졸업시험 합격 여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동의어 연상능력은 통역 전문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통역사의 전문능력에 동의어의 신속한 인출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동의어를 신속하게 인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휘연결 중에서도 동의어 연결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도 된다(그림 3 오른쪽).⁴⁾

〈그림 3〉 통역사의 어휘체계



- L1-L2의 균형
- L1⇌의미⇌L2 연결 강화 (L1⇌L2 강화로 어휘전환 자동화)
- L1, L2 등위어, 동의어의 강화
- 모든 어휘연결도 상대적으로 강화

이상에서 살펴본 통역사의 어휘능력 특징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이는 통역에만 해당되는 특징일 수 있다. 김혜영 외(2010:172)에 따르면, 문학번역에 있어 번역의 타입-토큰 비율이 원문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작가에 비해 번역사가 동의어, 혹은 유사어 어휘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점에서 동의어 연결 강화라는 통역사의 어휘적 특징은 보다 많은 경험적 뒷받침이 필요한 명제라 할 수 있다.

5) 이러한 어휘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은 어휘능력과 관련된 다중언어능력, 어휘전환능력, 기억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역습득에 따라 이 세 분야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변화하는지, 그 서순적 특징에 대해서는 정혜연(2012) 참조.

〈표 1〉 통역사의 어휘능력

단일언어자로서	(1) L1-의미의 연결이 강하다. (2) L1의 등위어 연결이 강하다.
고급 이중언어자로서	(1) L2-의미의 연결이 강하다. (2) L2의 등위어 연결이 강하다. (3) 그 밖에 L2의 어휘구조가 모국어화자의 그것과 유사하다.
통역사로서	(1) L1-L2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2) L1→L2, L2→L1의 연결이 강해지면서, 어휘전환이 빨라진다. (자동화) 결론적으로, L1⇔의미⇔L2의 연결이 모두 강하다. (3) (L1, L2) 동의어 연결이 강하다.

3. 실험

3.1 가설

본 장에서는 위에서 이론적으로 살펴 본 통역사의 어휘능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표 1>에서 정리한 통역사의 어휘능력적 특징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실험설계상으로는 지면상으로 무리가 있어, 이 중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선정하여 본 실험의 가설로 삼고자 한다.

- 가설 1 -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L1-L2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
- 가설 2 -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L2 어휘구조가 모국어 화자와 유사해진다.
- 가설 3 -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L1, L2의 동의어 연결이 강하다.

위 가설에서 ‘통역습득 연한(통역을 배운 기간)이 높을수록’은 통역사의 전문능력 발달의 서순성을 표현한 문구이다. 단순히 ‘전문가에게는...특징이 있다’라는 문구 대신 ‘...할수록...하다’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은 통역습득이 지속될수록, 통역능력이 순차적으로 변화해간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본고의 머리말에서 소개한 전제, 즉 ‘통역능력의 발달은 통역습득에 따라 일정한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를 따르는 것이다.

3.2 실험설계

3.2.1. 실험종류

검증해야 할 가설이 세 가지이니 만큼 실험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 가설 중 가설 1은 등가어 찾기 실험을 통해 검증을 시도한다. 같은 가설을 두고 실험한 쿠르츠(1996)의 경우, L1-L2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L1, L2로 각각 자극어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연상을 하도록 한 후, 그 연상어의 수에 따라 균형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양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모든 피험자가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연상어를 최선을 다해 제시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질적 기준을 채택하기로 한다. 어휘의 수 대신, 어휘의 정답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L1, L2 각각에 대해 등가어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 정답율을 측정하였다.

가설 2, 3은 연상어 실험을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다. L1, L2 각각에 대한 자극어를 제시하고, 그 자극어에 대해 최초로 떠오르는 세 개의 연상어를 제시하도록 한 후, 그 연상어가 모국어 화자의 연상어와 일치율이 높을수록 모국어 화자와의 어휘구조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가설 2). 같은 실험에서 제시된 연상어 중, 동의어 비율이 높을수록 동의어 연결이 강한 것으로 간주한다(가설 3).

3.2.2. 어휘선정

본 실험이 통역사의 어휘체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므로, 등가어 찾기와 연상어 실험에 사용될 어휘는 L1, L2에서 각각 어휘체계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어휘여야 한다. 다시 말해 L1, L2 어휘체계를 모집단으로 볼 때, 그 모집단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표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어휘를 선정하였다.

- (1) L1, L2 두 어휘에 동일한 어휘 수를 배정하였다.

(2) 어휘난이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어휘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같은 수의 어휘를 고르게 선정하였다. 한국어(L1)의 경우, 국립국어교육원 기준으로 1,500위 이하 어휘(초급), 1,500-10,000위 이하 어휘(중급)를 선택하였고, 독일어(L2)의 경우, Leipzig 대학 코퍼스를 기준으로 1,500위 이하 어휘(초급), 1,500-10,000위 이하 어휘(중급)를 선정하였다. 고급 어휘의 경우, 빈도수와 무관하게 국제회의 통역에 주로 사용되는 고급 시사용어를 선정하였다.

(3) 품사는 한 품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골고루 선정하였다.

(4) 기능어와 의미어에서는 기능어를 배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치사, 대명사 등의 기능어가 명사, 동사와 같은 의미어와는 달리, 단힌 어휘군이므로 고급 이중언어자인 통역습득자가 이를 이미 모두 습득하였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능어는 어휘능력 측정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본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5) 다의어 및 동음이의어도 포함시켰다.

(6) 구체어와 추상어도 동일하게 배정하였다.

(7) 복합명사는 배제하였다. 복합명사의 첫 단어가 자극어가 되어 비정상적으로 하위어, 등위어 연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 사과나무, 사과주스, 사과무늬, 사과씨 등).

(8) 영어와 어근, 어원이 같은 어휘도 배제하였다. 영어로 인한 점화효과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9) 개별적으로 어휘만 제시하기도 했지만(독립어), 텍스트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어휘를 선정하여 텍스트와 함께 제시하였다(문맥어).

3.2.3. 피험자

습득연한에 따른 어휘능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피험자를 장기간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가 바람직할 것이나, 피험자 확보, 동의 등의 어려움으로 본고에서는 횡단적 연구방식을 택했다. 이 실험에는 통역습득 연한이 각기 다른 네 집단, 16인의 피험자가 참여했고, 그 이외에도 가설 2 검증을 위해 1인의 독일어 원어민이 참여했다. 피험자 16인 중, 4인은 독문과 학부생으로

통역습득 연한이 가장 낮고6), 4인은 통역습득 연한 1년(통번역대학원 1학년), 4인은 통역습득 연한 2년(같은 학교 2학년)7), 마지막 4인은 같은 학교 졸업생으로 통역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 통역사였다. 독일어 원어민은 대학에 원어민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였다.

3.3 실험진행

실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본격적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문문을 실시하여, 피험자의 인적사항 및 외국어 습득시기, 방법 등을 물었다. 본 실험은 필기 실험과 구두 실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필기 실험은 그림을 제시하고, L1, L2 등가어를 찾는 실험과 L1, L2 자극어를 글씨로 제시하고 연상어를 쓰도록 하는 실험이었다.8)

〈그림 4〉 필기 실험(등가어, 연상어) 예시

<p>그림 1</p>  <p>신호등, ampel</p>	<p>크다 코끼리, 고층건물, 농구선수</p> <p>die Haltestelle Bus, Zug, viele Leute</p>
---	--

이어서 진행된 구두 실험에서는 피험자와 마주앉아 L1, L2의 자극어를 한

- 6) 학부생 4인은 모두 학부의 독일어 통역연습 수업을 수강한 바 있다고 답했다.
- 7) 본 실험이 9월 말에 실시되었으므로, 정확하게는 통역습득 연한이 1년, 2년에 못 미친다.
- 8) 통역능력의 일부로서 어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실험은 구두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구두 제시, 구두 답변). 단, 어휘의 형태가 아니라 의미가 자극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그림실험, 컴퓨터로 일치율을 산출해야 하는 연상어는 필기시험으로 진행하였고, 한 번 듣고 자극어를 모두 기억하기 어려운 텍스트 실험의 경우는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단어씩 읽어주고 이에 대한 등가어를 구두로 답하도록 하였다. 문맥어의 경우, 텍스트를 보여주고, 밑줄 친 어휘에 대한 등가어를 구두로 답하도록 하였다. 필기 실험은 컴퓨터 상으로 진행되어 MSR(My Screen Recorder)를 통해 동영상 및 ppt 파일 형태로 저장되었고, 구두 실험은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되었다.

〈표 2〉 구두 실험(등가어) 예시 (난이도 3단계)

(독립어) 책무기, 폐수, 출생률	(독립어) das Ladegerät, beichten
(문맥어)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시장을 놓고 기존 대형 항공사들과 독립 LCC들 간에 ‘골목 상권’ 논쟁 이 한창이다. 특히나 최근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하늘길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맥어) Die deutsche Wirtschaft schafft es immer noch, sich von der Konjunktur-entwicklung in der Euro-Zone abzukoppeln. Das Wachstum hierzulande hat sich zwar in zweiten Quartal verlangsamt, aber weit weniger stark, als von Ökonomen erwartet.

지금까지 소개한 실험의 구성과 진행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실험구성과 진행순서

실험순서	실험구성	
1	사전 설문	11문항 (연령, 성별, 외국어 습득시기, 방법, 통역경험 등)
2	필기 실험	1. 그림 보고 등가어 쓰기 (8문항) 2. 자극어 보고 연상어 쓰기 (52문항)
총 60문항		
3	구두 실험	1. 개별 어휘만 듣고 등가어 말하기 (60문항) 2. 텍스트에 밑줄 친 어휘보고 등가어 말하기 (30문항)
총 90문항		

3.4 실험결과 및 분석

3.4.1. 가설 1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L1-L2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한 관찰지표로 등가어 찾기 실험의 정답율을 사용했다. 총 98문항을 실험에 사용하였는데, 이 문항 중에는 그림으로 제시된 어휘를 보고 등가어 쓰기(8문항)와 구두로 제시된 어휘를 듣고 등가어 말하기(60문항), 텍스트에 밑줄 친 어휘 보고 등가어 말하기(30문항)가 있었다. 이렇듯 실험에서 그림 자극과 언어 자극을 구분한 이유는 그림 자극의 경우, 의미를 통해 형태를 인출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언어 자극의 경우, 형태에서 형태를 인출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이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필기로 치러지고, 시간 여유가 넉넉했던 그림 자극 실험에서나 구두로 이루어지고, 순발력을 요구했던 언어 자극 실험에서나 전문가 집단이 뚜렷하게 높은 정답율을 보였다. 집단별 피험자의 개별 점수와 정답율 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 4〉 등가어 찾기(필기) 실험 결과

	학부				통대1년				통대2년				전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S ⁹⁾	78	100	93	92	91	69	93	85	87	90	87	89	X ¹⁰⁾	100	97	100
T	363				338				343				297			
M	90.75				84.50				85.75				99.00			
SD	9.22				10.88				4.72				1.73			

전문가(99.00) → 학부(90.75) → 통대2년(85.75) → 통대1년(84.50)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 집단이 평균도 가장 높고, 개인별 편차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대2년과 통대1년 집단 비교도 예상한 바대로 통대2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학부 집단으로 전문가 다음으로 높은 정답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부생 중 2인이 유년시절(0-13

9) S - 점수(Score), T - 총점(Total), M - 평균(Mean), SD -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의 약자이다.

10) 피험자 13의 경우, 실험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등가어 대신 연상어를 적었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폐기하고, 나머지 3인의 점수만을 계산하였다. 피험자 13은 실험 당일 높은 피로감을 호소하였는데, 실제 실험결과를 보면 전문가 집단에서 피험자 13이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0-15세)을 독일에서 보냈고, 독일 중등교육 과정인 레알슐레(Realschule)와 김나지움(Gymnasium)을 각각 다녔던 이른 이중언어자(early bilingual)이었던 것이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학부생들은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통대1년보다 통역경험이 더 많았다. 이에 비해 통대1년 집단에서는 2인이 유년 시절 3년(4-6세, 10세-12세)을 독일에서 보냈지만, 이 중 1인만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대2년의 경우, 전원이 대학입학 이후 독일어를 습득한 늦은 이중언어자(late bilingual)였다.

〈표 5〉 등가어 찾기(구두) 실험 결과

	학부				통대1년				통대2년				전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S	675	681	672	589	542	595	574	544	734	X ¹¹⁾	619	662	719	836	812	862
T	2617				2255				2015				3229			
M	654.25				563.75				671.67				807.25			
SD	43.66				25.46				58.11				62.28			

전문가(807.25) → 통대2년(671.67) → 학부(654.25) → 통대1년(563.75)

구두로 실시된 등가어 실험에서는 대체로 통역습득 연한에 따라 정답율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전문가 집단의 정답율은 나머지 집단보다 100점(900점 만점에서) 이상 높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편, 구두실험에서도 필기실험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중등교육을 받았던 피험자가 포함된 학부생 집단이 통대1년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독일어를 사춘기 이전에 습득했다거나, 독일에서 학교를 다닌 것이 등가어 실험에 있어 높은 점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조건을 모두 갖춘 피험자 4가 낮은 점수를 보인 점, 구두 실험에서 학부생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준 통대2년 집단이 모두 늦은 이중언어자라는 점,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2인이 늦은 이중언어자라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필기실험과 구두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등가어 찾기 실험에 있어 전문가 집단의 우위는 뚜렷했다. 통대2년 역시 두 실험 모두에서 통대1년보다 높

11) 피험자 10의 구두실험 결과는 기계 조작 실수로 녹음되지 않았다.

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학부생 집단의 결과가 예상과 다르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L1-L2가 균형을 이룬다는 쿠르츠(1996)의 실험결과는 실험 및 분석 방법을 달리한, 본 실험에서도 증명되었고, 따라서 가설 1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겠다.

3.4.2. 가설 2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L2 어휘구조가 모국어 화자와 유사해진다’라는 가설의 검증은 피험자들의 독일어 연상어를 독일어 원어민의 연상어와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독일어 원어민과의 연상어 일치율이 높다는 것은 한 어휘에 연결된 어휘들이 원어민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휘 네트워크 상의 어휘연결 분포가 원어민과 유사하다는 뜻이다. 본 실험분석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¹²⁾을 통해 개별 피험자와 독일어 원어민의 연상어 일치율을 분석해 본 결과, 전문가 집단의 일치율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독일어 원어민과의 연상어 일치율

	학부				통대1년				통대2년				전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6.15	6.15	13.85	9.23	10.77	3.08	7.69	7.69	6.15	7.69	7.69	9.23	9.23	13.85	13.85	13.85
M	8.85				7.31				7.69				12.70			
SD	3.64				3.17				1.26				2.31			

전문가(12.70) → 학부(8.85) → 통대2년(7.69) → 통대1년(7.31)

이 실험의 결과도 가설 1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만이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통대2년이 통대1년에 미미한 차이로 앞섰다. 여기서도 학부생이 통대생보다 더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외국어 습득 배경과 비공식

12) 이 자리를 빌려 어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고, 직접 일치율을 산출해주신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노용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어화자-개별 피험자가 연상한 어휘(1인당 66개) 중 몇 %의 어근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예를 들어 같은 단어의 단수형, 복수형, 과거형 현재형 등은 동일어로 간주하였다).

적 통역경험이 실험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위 실험 결과로 볼 때,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실제 L2 어휘구조가 모국어 화자와 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실험에는 비교대상인 모국어 화자가 1인인 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어, 이 가설을 보다 분명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모국어 화자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가설 1, 2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통역습득 연한(변수 1)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춘기 이전의 독일어 습득(변수 2), 독일에서의 교육(변수 3)이 그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통역 실무경험(변수 4)이었다. 앞선 변수 1, 2, 3은 실험종류 마다 가시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지만, 변수 4는 모든 실험결과에 가시적 영향을 미쳤다. 즉, 가설 1, 2, 모두에서 피험자의 통역 실무경험에 따라 등가어 정답율, 연상어 일치율이 높아졌던 것이다. 이는 통역 실무경험이 통역능력(정확히는 통역능력의 일부인 작업기억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후속적 결론을 내린 리우위(Liu et. al. 2004: 38)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그 연구에서도 통역습득 연한이 긴 학생들이 통역습득 연한이 짧은 학생들에 비해 크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반면, 전문가들은 뚜렷한 우위를 보인 바 있다.

3.4.3. 가설 3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L1, L2의 동의어 연결이 강하다(가설 3)’라는 명제도 가설2와 같은 연상어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이 실험에는 가설 1, 2와 달리, 점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실험을 위해 선정된 어휘가 동의어 산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그 중 상당 부분이 동의어를 찾기 어려운 어휘(자외선, die Fussballweltmeisterschaft(월드컵) 등)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상어 전체(156개) 중 동의어 비율은 아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13%를 넘는 경우가 없었다. 점수 산정에 있어서는 확실한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는 어휘의 경우만(간신히-겨우) 온전히 한 개로 계산하였고,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정확히 동의어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반 개로 계산하였다(검증하다-검토하다, 환하다-빛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전체 연상어 중 동의어 비율

	학부				통대1년				통대2년				전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8.01	6.73	6.09	6.09	6.73	1.92	12.82	5.13	11.22	3.85	5.45	7.37	12.18	7.05	6.09	12.50
M	6.73				6.65				6.97				9.46			
SD	0.91				4.57				3.18				3.36			

전문가(9.46) → 통대2년(6.97) → 학부(6.73) → 통대1년(6.65)

동의어 실험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우위가 뚜렷했다. 나머지 세 집단 중 통대2년이 약간의 우위를 보였지만, 통대1년과 학부 집단과의 차이는 미미했다. 이 결과는 실험방법을 달리하기는 했지만, 통역능력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어휘종류가 동의어라는 결과를 얻은 거버 외(1989)의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단, 학부생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표준편차가 커서, 위의 결과가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는 동의어 실험을 목적으로 어휘를 선정한 실험, 피험자의 수가 보다 많은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편, 여기서도 가설 1, 2 때와 마찬가지로, 학부 집단이 통대1년 집단을 앞서, 학부 집단의 어휘능력이 실제로 통역전문가의 어휘능력에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추측을 더욱 강하게 해주고 있다.

〈표 8〉 전체 연상어 중 한국어와 독일어 동의어 비율

	학부				통대1년				통대2년				전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K(%)	6.67	7.22	3.33	5	7.22	0	11.67	5.56	6.67	3.33	6.11	6.11	16.11	6.11	3.33	7.78
D(%)	9.85	6.06	9.85	7.58	6.06	4.55	14.39	4.55	17.42	4.55	4.55	9.09	6.82	8.33	9.85	18.94
M(K)	5.56				6.11				5.56				10.98			
M(D)	8.33				7.39				8.9				8.33			

한국어: 전문가(10.98) → 통대1년(6.11) → 통대2년(5.56), 학부(5.56)

독일어: 통대2년(8.9) → 전문가, 학부(8.33) → 통대1년(7.39)

가설 3은 L1인 한국어와 L2인 독일어 모두에 동의어 비율 차이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 7>의 결과를 이번에는 한국어와 독일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한국어에서만 전문가 집단의 우위가 관찰되었다. 독일어에서는 통대2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사실 네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만 보면, 통역습득 연한에 따라 L1, L2 모두의 동의어 연결이 강해진다는 가설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가설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증하려면, 앞서 밝혔듯이 동의어 실험을 목적으로 한 어휘 선정, 더 많은 어휘, 피험자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3.5 실험결과 요약 및 토론

본 실험의 목적은 통역전문가의 통역능력의 일부인 어휘능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고의 이론적 틀에 따라 세 가지 가설을 정해두고, 이를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가설인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L1-L2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설은 어휘전환실험의 정답율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전문가의 정답율이 뚜렷하게 높아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설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L2 어휘구조가 모국어 화자와 유사해진다’는 모국어 화자와의 연상어 일치율 측정을 통해 시험해 보았다. 이 실험에서도 전문가 집단이 분명한 우위를 보여주어, 본고에서만큼은 이 가설을 타당하다고 간주하였다. 세 번째 가설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L1, L2의 동의어 연결이 강하다’에서는 혼합된 결과를 얻었다. L1, L2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전문가의 우위가 뚜렷했으나, L1, L2 각각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통역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동의어 연결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은 잠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듯하다.

가설 1, 2, 3 실험 전반적으로 볼 때, 모든 실험에서 전문가의 우위는 비교적 뚜렷했다. 그러나 통대1, 2년, 학부 집단 간의 차이는 미미했고, 서로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특히 학부 집단이 통대1년 집단을 앞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는 학부 집단 중 2인이 독일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연한이 길다는 사실과 통역 실무경험이 오히려 통대1년 보다 앞선다는 사실이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전문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실험에서 뚜렷

하게 앞섰다는 사실 역시, 통역습득 연한 자체보다는 통역 실무경험이 통역능력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5. 나가며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통역능력 중 어휘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어휘능력은 정혜연(2011)의 통역 하위능력 분류 중에서도 다중언어능력과 기억(지식), 어휘전환능력이 조합된 능력으로, 순차적으로 발달한다. 어휘는 텍스트와 같이 큰 언어 단위에 비해 크기가 작고, 해석의 모호성이 상대적으로 덜하여, 통역능력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에 좋은 대상이다.

통역전문가의 어휘능력은 단일언어자의 어휘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중언어자의 능력이 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역사에게는 첫째, L1-L2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둘째, L1, L2가 모두 의미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L2에 있어 어휘구조가 모국어 화자의 그것과 유사해진다. 셋째, L1→L2, L2→L1의 연결이 강해지면서, 어휘전환이 빨라진다(자동화된다). 결론적으로 통역사에게는 L1⇌의미⇌L2의 연결이 모두 강하다. 넷째, L1, L2 모두에 동의어를 포함한 등위어 연결이 강하다. 이 중, 본고에서는 첫째, 둘째, 넷째의 명제를 가설로 세우고,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 (네째 명제의 일부를 제외하고) 위 가설들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검증하지 못한 세 번째 명제 ‘통역습득 연한이 높을수록 어휘전환이 빨라진다’는 또 다른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볼 계획이다. 본고에서 검증했던 세 가지 명제 역시, 보다 많은 피험자가 확보된 후 재검증해보면 보다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등위어 등 통역사의 기타 어휘능력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고효정 (2013) 『통역습득에 따른 어휘변화 - 어휘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경험연구』,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 이영훈 & 고경은 & 김태준 & 이은정 & 조혜란 & 최현아 (2010) 「비교코퍼스에 기반한 불한 번역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연구 - 단순화와 어휘적 특성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1:1: 161-190.
- 김효중 (2000). 「번역등가의 개념과 유형설정」, 『번역학 연구』 1:2: 27-46.
- 정혜연 (2011) 「통역잠재력 검사지 개발」, 『독어학』 제24집: 249-275.
- (2012) 「통역에 대한 다섯 가지 가설」, 『통번역학 연구』 16:1: 145-175.
- 홍우평 역, Aitchison, Jean 저 (2004) 『언어와 마음 (Words in Mind)』, 서울: 역락.
- Bailey, Nathalie & Madden, Carolyne & Krashen, Stephen (1974) 'Is there a 'natural sequence' in adult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4, 235-243.
- Dulay, Heidi & Burt, Marina & Krashen, Stephen (1982) *Language Two*, Oxford: Oxford UP.
- Gerver, David & Longley, Patricia & Long, John & Lambert, Sylvie (1989) 'Selection Tests for Trainee Conference Interpreters', *Meta* 34:4, 724-735.
- Ginsburg, Herbert & Opper, Sylvia 저, 김정민 역 (2006)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Piaget's Theo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 서울: 학지사.
- Göpferich, Susanne (2008) *Translationsprozessforschung*,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King, Patricia & Kitchener, Karen (1994) *Developing Reflective Judgment: Understanding and Promoting Intellectual Growth and Critical Thinking in Adolescents and Adult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Kurz, Ingrid (1996) *Simultandolmetschen als Gegenstand der interdisziplinären Forschung*, Wien: WUV-Universitätsverlag.
- Liu, Minhua & Schallert, Diane & Carroll, Patrick (2004) 'Working memory and expertis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6:1, 19-42.
- PACTE (2008) 'Results of the Validation of the PACTE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Decision Making', *AILA World Congress 2008. Multilingualism, Challenges & Opportunities*, 1-5.
- Pavlenko, Aneta (2009) *The Bilingual Mental Lexikon: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Bristol, Buffalo, Toronto: Multilingual Matters.

Perry, William. Jr. (1970) *Forms of intellectual and ethncal development in the college year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Shreve, Gregory & Angelone, Erik (2010) *Translation and Cogni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bstract]

Lexical competence of professional interpreters
— An empirical research on interpreting competence —

Chung, Hye-yeon & Ko, Hyo-jung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ional interpreters are regarded as experts with ‘special’ abilities. However, these abilities -or more accurately, ‘the competence’, a psychological term for an innate ability system- are hard to identify. This paper focuses on one aspect of interpreting competence, namely lexical competence. The study builds the hypothesi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the lexical competence of professional interpreters is developed (specified) from the lexical system of bilinguals. The lexical system of bilinguals in turn is based on the lexical system of monolinguals. Based on the findings by researches that relate bilingual and interpreting qualities, this study set up the following hypotheses: The longer one acquires the interpreting competence (1) the more balanced are the L1 and L2 lexical systems (based on Kurz 1996), (2) the more similar are the L2 lexical structure to that of native speakers, (3) the stronger are the links between synonyms in L2 as well as in L1 (compared to non-interpreters) (based on Gerver et. al. 1989). These hypotheses are verified through the lexical transfer and words association tests. In this experiment 16 subjects(4 undergraduate students, 4 first years, 4 second year students of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4 professional interpreters with more than 5-year-experience) are tested for their lexical transfer and words association competence. In all related tests, the professionals showed the best results, while other groups yielded results that did not differ greatly from one another. This and the fact that undergraduate students who did not take regular interpreting

classes, but had more interpreting experiences than first year students, showed constantly better results than the latter, indicate that interpreting experience, rather than interpreting education, has mor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lexical competence.

▶ Key Words: professional interpreter, competence, lexical balance, synonyms

정혜연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조교수
johanna2000@hanmail.net
관심분야: 인지심리학, 통번역학

고효정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석사
lilyum2000@hanmail.net
관심분야: 통번역학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29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5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3일